

자료제공: 2023. 8. 18.(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홍보 담당관	김 규 리	02-2133-6405
	방송홍보팀장	이 윤 지	02-2133-6433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4쪽	담당자	안 주 희	02-2133-6442

서울시, 박노황 미디어재단 TBS 신임 이사장 임명

- 연합뉴스·연합뉴스 TV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오랜 언론경험 및 경영능력 갖춰
- 재단 운영 관련 최고의결기관 장으로써 TBS 문제해결에 나설 책임자로 평가
- 신임 이사장 임명으로 TBS 새로운 이사회 구성 마무리... TBS 혁신 동력확보 기대

-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에 박노황 전(前)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 TV 대표이사를 '23.8.18.(금)자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은 재단 정관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 박노황 이사장은 35년간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마케팅담당 상무, 연합인포맥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얻은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연합뉴스의 경영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정통 언론인으로서,
 - 2015년 연합뉴스 대표이사 취임 당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합리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언론사 경영 효율화 대책을 통해 해당 매체의 영향력과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 TBS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TBS의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과 신뢰받는 방송으로의 이행, 시의회 소통,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대 등 TBS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할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 TBS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 사업계획, 예산·결산, 규정 제·개정 등 재단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박노황 이사장은 방송경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종 TBS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이사진들과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 서울시는 “신임 이사장 임명으로 새로운 TBS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TBS가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과거의 편파방송 논란을 딛고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재도약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임명장 수여식 (8.18.)



미디어재단TBS 신임 이사장 약력

■ 인적사항

○ 성 명 : 박 노 황 (朴魯晁)

○ 생년월일 : 1957. 12. 7.



■ 주요경력

- 2015 ~ 2018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 2013 ~ 2015 연합 인포맥스 상임고문
- 2012 ~ 2013 연합 인포맥스 대표
- 2011 ~ 2012 연합뉴스 마케팅 상무
- 2009 ~ 2011 연합뉴스 편집국장
- 2007 ~ 2008 연합뉴스 외국어뉴스국장
- 2004 ~ 2007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 2003 ~ 2004 연합뉴스 남북관계 부장
- 1983 연합뉴스 입사